

2016년 3월

Paraguay

고현목 변성희 선교사 선교소식



Ko, Hyon-Mook P.O.Box 2910, Asunción-Paraguay / E-mail : pablokopy@gmail.com

파라과이의 지난여름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12월 내내 이어진 잦은 폭우로 인한 막대한 홍수의 피해는 그 시작에 불과했고, 1월과 2월 내내 최고 45°C를 넘나들던 폭염과 ‘독감 몸살보다 몇 배는 더 아픈 뎅기열’, ‘그 뎅기열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치쿤쿤야’, 그에 더해서 한국과 세계 각 나라의 뉴스 시간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카 바이러스’ 등등..., 모기에 의한 각종 전염 열병의 창궐로 인구 700만 명 정도의 파라과이에서 지난 1,2월 두 달 사이에만 4만 5천여 명이 뎅기열에 감염이 되었고, 그 중 76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2월 초, 저도 뎅기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본적은 처음이라는 신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쓰레기를 치우러 온 현지인 마차꾼이 자기는 치쿤쿤야를 앓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푸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심장이 썩는 것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프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뭐든 당장 내가 감염된 뎅기열이 급하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끔끔대며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질병 앞에서도 겸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동역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신 일들을 지면을 빌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 알따르 파밀리아르 교회의 침례식 ■

지난 12월 20일 주일 오후, Altar Familiar 교회에서 11명에 대한 침례식이 교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처음 13명 신청자들 중 최종 11명에게 침례를 행하기까지의 모든 양육 과정은 로메로 목사님께 대한 우선 지도를 통해 로메로 목사님이 대상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양육과 실습의 과정을 마친 후, 교회 근처의 개인 수영장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로메로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침례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기 직전에, 로메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나와 순서는 없었던 개인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한명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어서 방법조차 잊어버렸을 정도로 이름뿐인 부끄러운 목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제 남은 삶을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의 침체되었던 심령을 회복시키고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확실한 비결은 내(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잃었던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갑작스러웠지만 솔직했던 로메로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또레푸에르떼 교회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

사실 처음부터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면 결코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선을 긋고 있던 저희에게 주님은 현지 교회와 지역의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여러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복잡한 모든 서류의 준비 과정까지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15일, 지난 수년간 기도해오던 또레푸에르떼 교회의 학교가 첫 신입생들을 맞이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함께 다니기를 원하는 까닭에 아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밖에는 없는 저희 학교에서 기대했던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0여명의 유치원생들과 초등 1학년 19명으로 이제 막 시작한 학교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지역의 교육적인 필요 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우며 지역사회와 파라과이 땅에 필요한 경건한 인재들을 키우고 세워 나가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역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교회들, 특별히 교실의 건축과 각종 기물들의 마련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페잇빌 한인침례교회와 워싱턴 성광교회, 그리고 익산의 김신자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갖추어지기 시작한 교실이라는 인프라를 지역 복음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만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및 문화 교실들을 점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또레푸에르떼 교회가 되고, 올 하반기까지 교실 한 두 개가 추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이 영혼의 절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새롭게 목상하며 마음에 은혜의 흔적을 새기는 귀한 역사가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3월 14일 파라과이 선교사 고헌묵 변성희 올림

기 도 제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레푸에르떼 교회와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성장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도록 ● 연말 이전에 또 다른 교실의 건축 한 두 개의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알파르 파밀리아 교회의 성장과 로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주 사역인 교회 개척과 현지 목회자 멘토링 사역 이외에 밀알선교단과, 성경번역, 그 외 몇몇 동원 및 네트워크 사역 등의 여러 일들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도록
----------------------------	---